

통신서비스

SK 플래닛, 11 번가 분할 결정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098-6681
jisoo.jeong@meritz.co.kr

SK플래닛, 11번가 분할 후 SK테크엑스와 합병

SK플래닛, 19일 이사회를 열고 '11번가 인적분할 신설법인 설립'과 '데이터 마케팅 플랫폼 부문과 SK테크엑스 합병' 두 가지 안건을 승인. SK텔레콤은 7월 31일 주주총회 최종 승인을 거쳐 9월 1일 11번가 신설법인과 SK플래닛 존속 법인을 출범시킬 예정. SK텔레콤은 모바일 커머스 성장을 기반으로 11번가를 한국형 아마존(Amazon)으로 키운다는 계획

11번가, H&Q코리아로부터 5,000억원 규모 투자 유치

11번가 신설법인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을 통해 H&Q코리아로부터 5,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유치할 예정. 이는 신설법인 자본율의 약 18% 수준으로 11번가 기업가치를 약 2.3조원으로 평가 받은 것으로 추정.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ICT 기술과 결합한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며, 기존 2019년 흑자 전환 목표도 그대로 유지. 11번가는 향후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며, 이를 바탕으로 IPO 가능성도 염두 해 둔 것으로 파악

시사점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의 11번가 육성 의지가 확고한 만큼 매각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추가적인 투자 유치 노력도 지속될 전망. 일부 투자자들의 우려와 달리 11번가 5,000억원 투자 유치 금액을 통한 e커머스 시장 출혈 경쟁이 재발할 가능성은 제한적. 일반적으로 SK플래닛 지분가치를 장부가에서 일부 할인율 적용한 1조원 수준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H&Q코리아의 11번가 2.3조원 기업가치 평가는 대주주 SK텔레콤 주가에도 긍정적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6월 2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6월 2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6월 2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지수)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